5. 추가 내용  
- Reindex 소스 리팩토링 및 명령어 수정  
-t 타입: emass history  
-s 시작 날짜: YYYYMMDD  
-e 종료 날짜: YYYYMMDD  
-dd 지정한 시간/분으로 나누어서 검색 : H M  
-p 텍스트 파일 경로: /a/b/c.txt

예 1)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Emass 데이터를 시간별로 검색하고 재색인  
-t emass -s 20240801 -e 20240820 -dd H  
예 2)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History 데이터를 분 단위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색인  
-t history -s 20240801 -e 20240801 -dd M  
예 3) 지정된 메시지 ID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i 20240801000000.abcd12345  
예 4) 지정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p /a/b/c.txt

5. 추가 내용  
- Reindex 소스 리팩토링 및 명령어 수정  
-t 타입: emass history  
-s 시작 날짜: YYYYMMDD  
-e 종료 날짜: YYYYMMDD  
-dd 지정한 시간/분으로 나누어서 검색 : H M  
-p 텍스트 파일 경로: /a/b/c.txt

예 1)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Emass 데이터를 시간별로 검색하고 재색인  
-t emass -s 20240801 -e 20240820 -dd H  
예 2)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History 데이터를 분 단위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색인  
-t history -s 20240801 -e 20240801 -dd M  
예 3) 지정된 메시지 ID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i 20240801000000.abcd12345  
예 4) 지정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p /a/b/c.txt

5. 추가 내용  
- Reindex 소스 리팩토링 및 명령어 수정  
-t 타입: emass history  
-s 시작 날짜: YYYYMMDD  
-e 종료 날짜: YYYYMMDD  
-dd 지정한 시간/분으로 나누어서 검색 : H M  
-p 텍스트 파일 경로: /a/b/c.txt

예 1)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Emass 데이터를 시간별로 검색하고 재색인  
-t emass -s 20240801 -e 20240820 -dd H  
예 2)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History 데이터를 분 단위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색인  
-t history -s 20240801 -e 20240801 -dd M  
예 3) 지정된 메시지 ID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i 20240801000000.abcd12345  
예 4) 지정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p /a/b/c.txt

5. 추가 내용  
- Reindex 소스 리팩토링 및 명령어 수정  
-t 타입: emass history  
-s 시작 날짜: YYYYMMDD  
-e 종료 날짜: YYYYMMDD  
-dd 지정한 시간/분으로 나누어서 검색 : H M  
-p 텍스트 파일 경로: /a/b/c.txt

예 1)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Emass 데이터를 시간별로 검색하고 재색인  
-t emass -s 20240801 -e 20240820 -dd H  
예 2)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History 데이터를 분 단위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색인  
-t history -s 20240801 -e 20240801 -dd M  
예 3) 지정된 메시지 ID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i 20240801000000.abcd12345  
예 4) 지정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p /a/b/c.txt

5. 추가 내용  
- Reindex 소스 리팩토링 및 명령어 수정  
-t 타입: emass history  
-s 시작 날짜: YYYYMMDD  
-e 종료 날짜: YYYYMMDD  
-dd 지정한 시간/분으로 나누어서 검색 : H M  
-p 텍스트 파일 경로: /a/b/c.txt

예 1)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Emass 데이터를 시간별로 검색하고 재색인  
-t emass -s 20240801 -e 20240820 -dd H  
예 2)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History 데이터를 분 단위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색인  
-t history -s 20240801 -e 20240801 -dd M  
예 3) 지정된 메시지 ID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i 20240801000000.abcd12345  
예 4) 지정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p /a/b/c.txt

Adfasfadsfasfaf

5. 추가 내용  
- Reindex 소스 리팩토링 및 명령어 수정  
-t 타입: emass history  
-s 시작 날짜: YYYYMMDD  
-e 종료 날짜: YYYYMMDD  
-dd 지정한 시간/분으로 나누어서 검색 : H M  
-p 텍스트 파일 경로: /a/b/c.txt

예 1)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Emass 데이터를 시간별로 검색하고 재색인  
-t emass -s 20240801 -e 20240820 -dd H  
예 2)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History 데이터를 분 단위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색인  
-t history -s 20240801 -e 20240801 -dd M  
예 3) 지정된 메시지 ID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i 20240801000000.abcd12345  
예 4) 지정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p /a/b/c.txt

5. 추가 내용  
- Reindex 소스 리팩토링 및 명령어 수정  
-t 타입: emass history  
-s 시작 날짜: YYYYMMDD  
-e 종료 날짜: YYYYMMDD  
-dd 지정한 시간/분으로 나누어서 검색 : H M  
-p 텍스트 파일 경로: /a/b/c.txt

예 1)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Emass 데이터를 시간별로 검색하고 재색인  
-t emass -s 20240801 -e 20240820 -dd H  
예 2)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History 데이터를 분 단위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색인  
-t history -s 20240801 -e 20240801 -dd M  
예 3) 지정된 메시지 ID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i 20240801000000.abcd12345  
예 4) 지정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p /a/b/c.txt

5. 추가 내용  
- Reindex 소스 리팩토링 및 명령어 수정  
-t 타입: emass history  
-s 시작 날짜: YYYYMMDD  
-e 종료 날짜: YYYYMMDD  
-dd 지정한 시간/분으로 나누어서 검색 : H M  
-p 텍스트 파일 경로: /a/b/c.txt

예 1)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Emass 데이터를 시간별로 검색하고 재색인  
-t emass -s 20240801 -e 20240820 -dd H  
예 2)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History 데이터를 분 단위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색인  
-t history -s 20240801 -e 20240801 -dd M  
예 3) 지정된 메시지 ID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i 20240801000000.abcd12345  
예 4) 지정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p /a/b/c.txt

Hohohohohohohohohohohohoh

Wawawarararararararararararararararara

@@@@@@@@@@@@@@@@@@@@@@@@@@@@@@@@@@@@@@@@@@

123412312312312312312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5. 추가 내용  
- Reindex 소스 리팩토링 및 명령어 수정  
-t 타입: emass history  
-s 시작 날짜: YYYYMMDD  
-e 종료 날짜: YYYYMMDD  
-dd 지정한 시간/분으로 나누어서 검색 : H M  
-p 텍스트 파일 경로: /a/b/c.txt

예 1)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Emass 데이터를 시간별로 검색하고 재색인  
-t emass -s 20240801 -e 20240820 -dd H  
예 2)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History 데이터를 분 단위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색인  
-t history -s 20240801 -e 20240801 -dd M  
예 3) 지정된 메시지 ID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i 20240801000000.abcd12345  
예 4) 지정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로 재색인 (날짜검색은 무시됩니다.)  
-t emass -p /a/b/c.txt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미래 세계에서 '하늘을 나는 무공해 전기 자동차', '완전 자동화된 가사노동', '우주로 가는 수학여행'처럼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상용화가 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나마 '한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의 형태로 우리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그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의 수준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에 있다.

​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학습한 끝에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기사들을 꺾은 '알파고'의 등장 이래, 많은 사람들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두고 '특이점은 온다'는 상용구를 쓰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인공지능을 게임과 관련하여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아주 잉여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말이다.